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담론과 균열

- 이석훈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진영복*

|| 차례 ||

- I. 만주, 헤게모니의 공간
- II. 내선일체와 만주
- III. 내선일체의 동조와 동일시의 서사
- IV. 내선일체의 환멸과 분열의 서사
- V. 맺는 말

【국문초록】

만주국 수립 이후 일본의 지배력이 확대되자 만주는 조선인들에게 방랑과 민족운동의 공간에서 개척과 이주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미나미 총독에 의해 제기된 내선일체는 만주조선인에게는 탈식민자의 욕망이자, 식민주의자의 욕망으로 이중화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내선일체가 지닌 이중적 욕망 구조와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내선일체와 관련된 일본어 소설을 쓴 이석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석훈의 <北の旅>에서 만주는 신생을 꿈꾸게 하는 회개의 윤리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 소설은 내선일체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일본과의 동일화를 통해 주체를 식민자로 구성하고 만주를 새로운 식민공간으로 인식한다. <血緣>은 내선일체가 결혼이라는 일상적 삶으로 구체화된다. 남녀의 결혼을 다루고 있지만, 일본/조선은 남성/여성의 젠더화로 표상되는 제국/식민지의 체계를 거부하는 서사구조를 띠고 있다. 오히려 제국주의자의 욕망을 품은 남성적 형님/남성적 동생으로 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발표된 <旅おはり>에서는 내선일체에 대해 간도 조선인의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 자기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한 피로감이 재현된 것이 <善靈>으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로, 식민자를 모방하려는 피식민자의 자기 분열상을 담고 있다. 이 분열은 식민자와 동일시하려고 해도 동일시 되지 않으며, 식민자는 결코 피식민자에게 동일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온다.

일제 말기, 만주는 이석훈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 내선일체로 인해 식민자 일본인, 식민자/피식민자 조선인이라는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게 하여, 식민자가 될 수 있다는 욕망을 갖게 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조선인은 결코 만주국에서 식민자가 될 수 없는 위치였다.

주제어 : 만주, 내선일체, 식민자, 피식민자, 욕망, 동일화, 분열, 이석훈

I. 만주, 헤게모니의 공간

만주국 수립 이후 조선과 만주는 1931년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일본의 지배력이 확대되자 만주는 조선인에게 방랑과 민족운동의 공간에서 개척과 이주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1932년 만몽박람회에서 시작된 만주 붐은 만주국이 치안을 확보하고 고도성장의 공업국이 되면서 조선인 여행단과 시찰단이 오고가는 등 더욱 확대된다.¹⁾ 1933년 일본신문협회 단체의 일원으로 대련 박람회를 참관하고 만주 전역을 답사하고 온 이광수와 김형원은 『재만동포문제 좌담회』²⁾에서 재만조선인은 농업이민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인육장사, 여관업, 마약, 밀수 등의 부정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만주가 광산, 임업, 축산업 등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진출한 조선인은 없냐는 질문에 김형원은 자원이 많이 “있어야 많지만, 조선사람 차례에까지 와야지.”라고, 이광수는 “권리도 잘 차례에 오지 않지만 조

1) 한석정,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37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03. 11, 55-61면.

2) 이광수·김형원·김동환, 『재만동포문제 좌담회』, 『삼천리』, 1933. 9, 49면.

선 사람은 자본이 있어야 무얼하여 보지요. 만주 들어갈 때 다만 얼마라도 자본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 상응하게 다 돈을 모으고 지반을 닦고 앉아섰지만 적수공권으로 들어간 사람은 밤낮 건달로 돌아다는 것이 만주 더구만.”(49-50면)이라고 대답한다. 이광수는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 불가피적으로 다수한 농민이 이주할 줄 아는데, 이제는 상조권(商租權)도 해결되어, 토지소유에 관한 조선인의 항구적 권리도 확인받게 되었으니까, 가서 살맛이 있을 줄 알아요.”(50면)라고 전망한다. 이제 만주는 조선인에게 새로운 진출과 기회의 공간으로 부상한다.

『삼천리』는 1936년 8월호에서 『만주가서 돈 벌나면?-제 권위 모혀 원탁회 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좌담회는 1936년 9월 만선척식회사(滿鮮拓植會社)의 출범으로 조선인의 만주 진출이 본격화 되는 즈음에 마련된 것이다. 이 좌담회에서 공진항³⁾은 만주사변 전에는 정치적 불안 때문에 기업가다운 기업이 없었지만 앞으로 진출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투자가로 보더라도 조선 사람이 투자할 시기는 이때라고 봅니다. 좀 더 있어서 치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소문만 있으면, 오사카(大阪), 도쿄(東京) 등지 대재벌이 진출하면 우리는 그때 진출하해도 불가능하고 또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농민도 지금 이주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 몽고인 등이 수전(水田) 경작법을 배워가니 차차 속달하여가면 노력, 근로로는 도저히 우리가 못 당하니 손해가 올 것이외다.”⁴⁾라고 ‘조선재벌이 의무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몇 년 뒤의 일이지만, 조선 민족 자본의 만주 진출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하얼빈 유지들이 “조선내지의 자본가들은 왜 정도(程度)대로나마 만주로 진출이

3) 공진항(孔鎭恒)(1900년~1972)은 와세다대학, 런던대학, 소르본대학에서 수학한다. 귀국 후, 도산 위기에 있던 가업(家業)을 재건하고, 1934년부터 만몽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인의 만주 진출의 계기를 마련한다.

4) 좌담, 『만주가서 돈 벌나면?-제 권위 모혀 원탁회 열다』, 『삼천리』, 1936 8, 133면.

없느냐”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자 기자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조선 사람도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신념을 몇 해 이래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선 사람도 자력으로서의 힘을 얻었습니다.”⁵⁾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조선인에게 만주는 제국주의 지배 권력과 협력의 전제로 하여 다른 다종다양한 권력과의 불균형적인 교환과정 속에서 민족자본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공간이며, 동시에 피식민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주의 공간이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공업화로 인해 과잉인구가 발생하자 조선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관동군은 일본인 중심의 만주 이주를 기획했으나 치안의 불안으로 실패하는데 ‘투룡산(土龍山)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제2차 일본인 무장이주단이 입식한 북만주의 신장성(三江省) 이란현(依蘭縣) 투룡산에서 1934년 3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동군의 토지매수, 총기회수, 종두접종에 반대하여 중국 농민 1만여 명이 봉기를 일으켜 관동군이 전차,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겨우 진압할 정도의 대단한 규모였다.⁶⁾ 이처럼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탓에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가 한계에 부딪히자⁷⁾ 관동군은 조선인의 만주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5) 이상호(조선일보산업시찰단), ‘합이빈과 회사’, 『재만동포의 근황』, 『삼천리』, 1940. 3. 276면. 이상호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오리엔탈 맥주회사를 취재한 후 “물론 서울 있는 싹뿌로, 기린 같은 대기업에 비하다면 소꿉질같은 수공업적 공장입니다. 나는 여기서 한결 더 이 공장의 값을 들보아드린 것입니다. 십만원도 못 되는 자본으로 함석바닥 속에서 만들어낸 맥주는 수천만원 자본의 대공장에서 생산되는 군대맥주(群大麥酒)들과 열오(列伍)를 같이 하여 북만(北滿)을 시장으로 당당히 발매(發賣)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적은 자본이라도 열성과 노력의 가미 여부에 따라서는 대자본의 절대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표본을 이곳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다.

6) 임성모,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 역사연구』, 29집, 2009, 154면.

7) 좌담, 『만주가서 돈 벌나면?-제 권위 모혀 원탁회 열다』, 『삼천리』, 1936. 8, 136면.

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만주 진출은 만주국,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역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만몽산업주식회사의 만주 진출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공진항은 만몽산업의 농장에서 나온 “백미를 군부에도 바치며 시민에게도 소매”⁸⁾하며 경영한다고 설명한다. 만몽산업주식회사는 1934년 공주령 오가자 농장 개척에 “담총병사(擔銃兵士)와 같이 나아가 이 일을 하였”⁹⁾다는 기록이나, “38년도 이분들의 만몽회사가 공주령에서 왔습니다. 공주령에 일본군부가 있었습니다. 동북을 점령하기 위한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처음 근거지를 공주령에 건립했지요.”¹⁰⁾라는 진술과 “그 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이니까 일본 놈들에게 우세를 얻을 수 있잖아요. 토지를 우선적으로 살 수도 있고, 개척 권리를 얻을 수 있고”¹¹⁾라는 언급을 통해서, 조선인의 농장 개척 과정에 중국농민의 희생과 저항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동군이나 일본영사관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진항은 안가(安家) 지역 개척과정에서 만주사변의 주동자이자 관동군참모차장이었던 이시와라 칸지(石原莞爾)에게서 정책적 협조를 얻어 성사시키기도 한다.¹²⁾

이처럼 일본인이 생활, 문화, 경제적 수준이 낮고 치안이 불안한 만주로 이주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만주국이 개발과 병참기지의 역할로 경제적 호황을 구가하자 조선인의 만주 진출과 이주는 늘어난다. 선만일여(鮮滿一如)를 내세운 미나미 총독의 부임은 만주를 ‘조선의 내지화’로 만들자는 확장육망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고¹³⁾ 또한 미나미 총독이 내세운 ‘내

8) 공진항, 「무엇이 그리워 만주를 다니는가?」, 『조광』, 1939. 7. 69면.

9) 함대훈, 「남북만주편답기」, 『조광』, 1939. 7. 86면.

10) 김도형 엮음, 『식민지시기 재산조선인의 삶과 기억』, IV, 선인, 2009. 26면.

11) 위의 글. 28면.

12) 공진항, 『이상향을 찾아서』, 灌漑공진항고회기념문집발간위원회, 1970, 60면.

13)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은 ‘개척민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1939. 10. 12-1940. 6. 1)에 연재되었으며, 1943년 4월에 『춘추』에 ‘개척민소설 특집’으로 인수길

선일체'는 조선인 역시 '황국신민이자 일본인이다.'라고 주장하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지는 '보상의 논리'로 작동하며 새로운 타자로 만주를 발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는, 억압당하는 피식민자인 조선인이 고통의 기억을 심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억압자를 증오했고 모든 책임을 식민자에게 돌리면서도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선망하고 따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상한다. 본고는 일본 국책에 협력하여 만주를 방문하고 1943년 자신이 꿈꾸던 만주로 이주하였던 이석훈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내선일체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던 민간단체인 '녹기연맹'¹⁴⁾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내선일체를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욕망하고 그것의 실현 장소로 만주에 주목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그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내선일체를 통한 제국주의적 욕망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재만조선인에게 내선일체가 함의했던 중층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먼저 재만조선인의 위치와 내선일체가 지니는

의 「목축기」, 마츠야마 아끼라(松山實)의 「환등(寒燈)」, 신서야의 「피와 흙」이 발표된다. 그 외 이기영의 「처녀지」(1944), 안수길의 「토성」(1942), 윤백남의 「별통」(1945), 정인택의 「검은흙과 흰 얼굴」(1942) 등이 만주개척문학에 속한다. (조진기, 「만주 개척민소설 연구」, 『우리말글』, 통권 26호 우리말글학회, 2002. 12). 이밖에 만주개척민소설을 다룬 연구로는 이혜진의 「총력전 체제하의 정인택 문학의 좌표」(『한국학연구』 제2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11, 257-285면), 김진아의 「재만조선인 문학 연구-『썩트는 大地』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제46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6, 349-380면)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개척민 소설이 일제의 제국주의 욕망을 실현하는 목적문학, 즉 국민문학적 성격을 지녔음을 규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윤대석의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과 진영복의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대중서사연구』, 제23호, 대중서사학회, 2010. 6, 33-65면) 등의 연구는 국민문학이 지닌 순응과 저항이라는 양가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피식민자적 주체의 균열과 모순으로부터 후자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14)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50호, 역사비평사, 2000, 200-216면.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재만조선인의 교육 문제를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교육 문제에 이들이 속한 ‘국민’의 경계와 지위가 침예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II. 내선일체와 만주

1941년 4월 9일 미나미는 조선총독으로서 처음으로 만주국을 공식 방문한다. 열흘간의 만주 방문 결과 재만 “조선동포를 황국신민으로서 취급”¹⁵⁾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총독을 수행·취재한 기자는 보고한다. 이후 4월 22일 조선과 만주에서 동시에 ‘선만일여 강화조장에 관한 건’을 발표하는데, 이 협정문에서 재만조선인의 복잡한 위치가 잘 드러난다.

이 중에서 제일 골자 되는 것은 선만일여의 지도요강에서 (2)와 (3)이다. 즉 (2)에 있어서는 조선에서 부르짖는 ‘내선일체’를 만주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해하고 여기에 절대한 협력을 함으로 (3)에서 말한바 호적을 가진 재만주조선인은 총량한 황국신민이라는 본질을 기초로하여 선량한 만주국인민이 되도록 교양을 가지게 하고 지도를 가지게 하사 조선인으로서의 가져오던 인정, 풍속, 습관에 있어서도 만주국과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것은 서서히 고치도록 하면서 만주국 건국의 정신인 일척일심과 민족협화의 지도이론을 존중히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¹⁶⁾

‘총량한 황국신민’이며 ‘선량한 만주국인민’이자 민족적으로는 조선인이라는 경계와 지위의 복잡성에서 재만조선인 문제가 발생한다. 미나미 총독 만주국 방문에서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것도 이들이 속

15) 이정순, 『남(南) 총독 만주국방문기』, 『新時代』, 1941. 6, 29면.

16) 위의 글, 29면.

하는 ‘국민’의 중층성과 경계에 있다. 재만조선인들이 “교육문제는 내지인 측은 그냥 대사관 측에서 경영하나 조선인측은 거의 전부 만주국측에서 관할하니 조선인도 내지인으로서 교육을 받게 해주오! 하는 것이 만주에 있는 동포들의 희망이요 탄원”(29면)이라고 기지는 전한다. 1935년 치외법권 철폐 조약 당시, 관동군과 만주국 정부가 조직했던 만주국 ‘치외법권철폐 현지위원회’는 일본인 교육은 일본 측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한 반면 재만조선인 교육은 『재만조선인교육행정처리요강』을 만들어 만주국 측에 이관했다. 이 결정은 재만조선인을 오족협화라는 원칙 아래 만주국민으로 편입하려는 관동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재만조선인과 재만일본인 교육을 구별하는 것은 내선일체를 표방하는 통치의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반대했다.¹⁷⁾ 그런데 1941년 조선총독이 만주국을 방문하자 재만조선인은 내선일체를 들어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식의 교육을 받기보다는 일본이나 조선식으로 받게 해달라는 탄원한다. 즉 재만조선인이 만주국 국민인가 아니면 일본국민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재만조선인의 교육에 관한 불만과 지위의 문제는 미나미 총독 방문 이후 조선총독부 재만조선인교육시찰단에 제출된 목단강 지구 조선인들의 진정서 『선계교육보고 및 요망사항』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재만반도인은 재만일본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의 신민인 동시에 만주국의 구성분자이다. 조선에 있어서 수회에 거친 교육령 개정은 늘 일시동인의 어은애(御恩愛)하에 진행되었으며 모든 교육시책은 내선일체를 기본방침으로 하였다.”라고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일본국민임을 내세워 차별을 시정하라고 탄원한다. 즉 만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17) 田中隆一, 『日本の‘滿洲國’統治と在滿朝鮮人門題:‘五族協和’と‘內鮮一體’の相剋』, 『만주연구』, 1호, 만주학회, 2004, 104-105면.

대우해 달리는 것이다. 이들은 “재만반도인 교육권만 이양하고 교육정도를 후추(後追)의 만계(滿係)와 대등시켜 재선동포와 인간적 차이를 조성하는 것은 실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라며 “선만(鮮滿)을 비교하면, 재만반도인도 동일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이런 사람들이 왜 모국에 의하여 서차취급을 당해야 하는가”¹⁸⁾라고 울분을 토한다. 이들은 “교육령은 조선교육령에 의거할 것, 의무교육 제도를 재외동포에게도 시행 실시할 것, 교과서는 선내지(鮮內地)의 것을 사용할 것, 선만(鮮滿)교육상의 연계를 긴밀히 할 것, 사도교육의 충실을 기하여 전만(全滿) 및 선만(鮮滿) 간의 교원의 교류의 길을 열어줄 것, 재만교원의 대우를 개선하여 교원의 질을 향상할 것, 내선일체의 실(實)을 만주내에도 철저히 할 것, 학교조합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할 것, 재정적 기초를 확립할 것”¹⁹⁾ 등을 요망한다. 특히 ‘내선일체의 실(實)을 만주내에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요구가 눈

18) 在牧丹江日本帝國領事館, 『朝鮮人教育ニ關シ在鮮人ヨリ要望ニ關スル件』, 1941. 박근혜, 『만주사변 후 일제의 재만조선인교육정책 연구』, 『동방학지』 13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72면에서 재인용.

19) 위의 책. 실제로 교육의 만주국 이양 당시 7:9:3의 비율로 만주국: 총독부: 학교조합이 아동 일인당 19원의 경비를 각출하기로 한 것이지만, 조합원의 부담은 3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만주국과 총독부의 부담은 그대로여서, 양쪽 정부의 비협조로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재만조선인의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은 재만조선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신학제’(新學制) 발포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만주국에서는 1937년 5월 ‘신학제’(新學制)를 발포하여 1938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조선인보통학교와 사립학교는 만주국 학제에 편입됨으로써 완전히 자율성을 잃어 버리고 만다. 또한 ‘신학제’는 ‘충량한 국민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업교육 강화, 수업연한 단축, 일본어 교육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본인 교육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하였고, 이는 또한 조선 국내교육 수준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차등이 있었다. 또한 중등교육을 상급학교 진학의 성격을 띤 보통중학이 아니라 농, 공, 상 등의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제 역시 기존의 5,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결과, 교육과정상 일본, 조선의 상급학교로서의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박근혜, 『만주사변 후 일제의 재만조선인 교육정책 연구』, 『동방학지』 13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59면.

에 띈다. 실제로 만주국 내에서 조선인은 병역의 의무대상이 아닌 유일한 집단이었으며, 조선인의 소망처럼 일본-만주국 사이의 중간자적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²⁰⁾ 재만조선인은 스스로를 만계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자신들과 구별짓고 있다.²¹⁾

이처럼 재만조선인 교육은 ‘충량한 황국신민’이자 ‘선량한 만주국인민’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띠며 또한 조선민족이라는 종족적 특수성까지 가미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나아가 재만조선인과 만주국 인민의 미묘한 갈등을 대변해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²²⁾ 따라서 재만조선인의 정체성과 지향을 규정하는 문제와 연관된 재만조선인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태준은 “애초엔 우리 이민부락들이 연합해 가지고 설립 유지한 것인데 인전 만주국서 인수해 가지고 그들의 방침하에서 경영되는 것이니까 불원(不遠)하여 교과서나 교원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 한다. 그것보다 오히려 만보산 일대는 수도의 인접지라 국경지대나 마찬가지로 조선인 이민지구가 아니니까 어떤 정리를 당할지 추측할 수 없다는 것”²³⁾이라고 민족운동과 민족의 위기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에 비해

20)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 일부는 부와 권력을 가진 일본과 만주국의 중간자적 존재로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일본인의 하위범주로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179-190면.

21) “만주국이 생기자 일등은 일본인, 이등은 조선인, 삼등은 한(漢)·만인으로 구별하고, 배급의 식량도”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이러한 구별짓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태준, 『농군』, 『돌다리』, 박문서관, 1943, 114면.

22) 유진오의 소설 『신경』(1941)에서 주인공 철은 ‘조선 사람은 황국 신민이요 일본인이 다.’는 생각을 갖고 만주에 갔지만, 만주에는 일계(日系)와 만계(滿系) 외에 또 한 가지 선계(鮮系)라는 것이 존재하고, 선계의 지위는 일계와 만계의 중간에서 있는 ‘복잡 미묘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만난 철이 만난 회사 간부나 고급 관리들도 조선 사람을 ‘한 가지는 조선 사람을 만주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내지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다.’라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대한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만주국 참사관인 진학문은 “만주건국 이후도 아직 만주국내로 이관되지 않아 획일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²⁴⁾라고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주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장혁주는 “개척지의 학교는 만주국의 경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반도인으로서 내선일체의 정신 하에서 교육방침을 세워야 하겠는데 학교 자체가 만주국의 경영이니까 이 교육 정신의 통일 문제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였습니다.”²⁵⁾라며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장혁주는 만보산 부락이 자작농 부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조선농민의 고투와 “그리고 그들이 관동군의 각별한 애호를 받고 있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힘을 적잖이 입어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따라서 “내선일체 정신에 대해서도 조선내지 이상으로 열렬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²⁶⁾고 적고 있다. 이러한 장혁주의 진술은 내선일체를 통해 재만조선인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조선인의 소망 때문에 조선총독의 공식 만주국 방문은 연길에서 국기(일장기)를 들고 조선총독을 환영하는 조선인 인파의 물결로 이어지고 다음과 같이 자못 감동적인 장면으로 묘사된다.

봉천서 길림으로 들어갈 때고 그러하였거니와 길림서 연길로 나오는 철도 연선 각 역에는 조선 개척민들이 10리 20리 아직도 눈이 쌓인 먼 길을 더듬어, 멀리서온 고향의 아버지 남 총독을 환영하는 그 장면은 감격에 넘쳐 눈물까지 나왔으며 여기에 남 총독은 친히 차에서 내려 “농사짓기에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하는 등 실로 감격 그정뿐이었다. 그리고 연길은 조선동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 2만여 명의 환영진이 역두에 늘어진 점으로

23)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1938. 4. 8-21면.

24) 함대훈, 「남북만주편담기」, 『조광』, 1939. 7. 80면.

25) 좌담회, 「개척지의 과제」, 『매일신보』, 1942. 6. 24-27면.

26) 장혁주, 「개척지 시찰 보고」, 『매일신보』, 1942. 6. 13-15면.

이번 만주여행 중 환영으로는 으뜸이 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새로우며²⁷⁾

이처럼 내선일체는 조선인이 만주국에서 일본이나 조선과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이데올로기이자 만계와의 차이를 생산하는 구별짓기의 원리가 된다. 즉 만주에서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는 만주족을 피식민지적 타자로 새롭게 인식하고, 일본신민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식민자와 동일시하려는 욕망을 가능케 하는 담론으로, ‘동화의 논리로서의 내선일체’와 ‘차별로부터의 탈출로서의 내선일체’²⁸⁾가 작동되는 담론장이었다. 그러나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는 차별을 시정하라는 기능을 내재한 것이자 또한 식민자의 본질적 우월성에 기초한 지위를 전제하고 이에 일방적 동조와 동일을 요구하는 강제성 역시 갖고 있었다.²⁹⁾

Ⅲ. 내선일체의 동조와 동일시의 서사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27) 이정순, 「남(南) 총독 만주국방문기」, 『新時代』, 1941. 6, 30면.

28) 宮田節子(이형량 역), 『조선민족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29) 하나의 사례로 「민락중심소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공진항의 만몽산업주식회사에서 개척한 농장에서 건립한 것으로 1942년도에는 ‘민영’학교를 ‘공립’학교로 개정하고 ‘초급학교’를 ‘우급학교’로 승급되어 일정한 교육경비와 설비를 성으로부터 조달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황민화교육은 더욱 가심하여져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적 교육령과 창궐한 황민화정책은 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일본식으로 이름 짓는 ‘창씨개명’ 정책을 실시하고 조선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였기에 제2대 교장, 제3대 교장 선생님이 분명 조선인이었지만 75세가 넘는 제자들이 아직도 그 교장선생님의 조선인명함을 모르시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민족의 기초문화지식만은 전수받을 수 있었다.”며 강압적인 시기의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 이상룡, 「민락중심소학교」(1939년-1999년), 김도형 엮음,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Ⅳ, 선인, 2009. 168면.

식민자/피식민자의 동조와 차별, 동화와 강제의 중층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선일체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훈육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동화의 논리가 되지만 식민 주체의 훈육에 의할 때는 폭력적 강제임을 이석훈의 소설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석훈은 내선일체 운동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녹기연맹에서 활동하고, 조선문인협회와 조선문인보국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문학가이다. 당시 내선일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민족정체성 내지 조선어 및 조선문화의 유지와 포기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지는 ‘평형 제휴론’ 계열과 일체의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일본에 융합 동화하지는 ‘동화 일체론’ 계열로 나누어진다. 이석훈의 입장은 후자에 속한다. 그는 언어문제에서 조선어로 쓰고 국어(일본어)로 번역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논리적 유희’하고 단정한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과 생리에서 탄생되는 하나의 혈연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므로 일본적인 국민문학은 일본어 이외에는 달리 적절한 표현어가 없기 때문”³⁰⁾에 일본과 철저한 동일화(Identification)를 이루려면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석훈은 주장한다.

이석훈의 <北の旅(북으로의 여행)>³¹⁾은 동화 일체론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채만식, 이무영, 정인택, 정비석과 함께 만주를 시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것으로,³²⁾ 만주의 식민지 지배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만주의 지배자가 되려는 식민주의적 의식이 전면에 노출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철은 간도 지방의 시찰을 끝내고, 20년 전 고향을 떠나 만주를 유랑했던 숙부를 찾아 나선다. 숙부는 고향에서 몰락해 ‘신생(新生)’을 만주에서 도모하고자 식솔을 데리고 고향을 떠난 것이다. 숙부 일가가 살

30) 이석훈, 『새로움에 대해』(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171면.

31) 이석훈, 『北の旅』, 『國民文學』, 1943. 6. 이하 인용은 필자 번역.

32) 1942년 12월 26일 간도성 홍보위원회가 조선문인협회에 의뢰하여 만주를 시찰한다.

고 있는 이민 부락은 빈약했다. 숙부는 만주국이 성립될 무렵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며,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일본 편에 서”야만 한다고 판단했다고 회상한다. 숙부에게 20명의 동지들이 있었지만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은 고작 4명인데 이는 공산당을 믿는 자의 소행 탓이었다. 숙부도 죽을 고비를 이 썩리는 공산당원이 알려 줘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한편 재만조선인이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한 수단이란 게 ‘부끄러운 비법행위’였다. 당시 재만동포에게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³³⁾라고 숙부는 말한다. 숙부는 그 간의 여러 좌악을 겪고 개척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더 좋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나이 54세에 북만의 촌장이 되어 안전부락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北の旅>은 숙부의 예를 통해 만주는 신생을 꿈꾸게 하는 회개의 윤리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또한 만주는 여러 사상이 교차하는 공간(space)이었을 뿐이지 삶에 기반한 가치의 장소(place)가 아니었다. 일본 편에 서서 백지의 공간이었던 만주를 인간화된 애착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숙부의 갱생(更生) 과정이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만주는 주체들 사이의 체계모니가 벌어지는 철저히 빈 공간으로 제시된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민이 아니고 ‘개척’으로 표상된다. 숙부가 밀매한 비법행위 물건의 소비자인 다른 민족의 목소리는 결락되고, 일본과 소련의 대립 구도 속에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소거된 채 윤리적 회개와 생활 의지를 실행하는 갱생의 서사를 중심에 놓고 있다. 과거의 혼란과 고생담의 눈물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현재와 미래에의 의지적인 확신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렇듯 <北の旅>의 서사는 타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 때문에 재현 불가능한 현실이나 사건의 잉여 등을 과거의 시간 속에

33) 이석훈, 『北の旅』, 『國民文學』, 1943. 6. 31면.

밀봉해버린다. 이 소설에서 다양한 사건과 타자를 부인하면서 갱생의 완결된 서사로 재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타자가 당한 폭력을 부인하고 망각하는 것이다. 이는 타자의 고통을 연대감에서 공감하는 태도가 아니라, 타자의 고통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고통을 식민자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극복하려는 피식민자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지점이다.³⁴⁾

철은 군인이 되고 싶다는 씩씩한 사촌동생을 “황막한 자연과 혼돈 하는 사회 사이에 태어난 ‘만주의 자식’”(33면)으로, 만주의 당당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바라본다. 체코 기충으로 무장한 자위단의 모습과 지원병을 앞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어 야학이 행해지고 있는 풍경에서도 ‘북만의 흙’이 되려는 ‘개척 정신’을 발견한다. 스스로를 방위하겠다는 이들의 주체화 과정을 매끈한 서사로 만들기 위해 다른 타자들의 이야기는 결락된다. 내선일체에 대한 확신이 일본과의 동일화를 통해 주체를 식민자로 구성하고 만주를 새로운 식민공간으로만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血緣>은 <北の旅>의 후속편으로 역시 숙부의 집을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사촌 용식이 신경에 터를 잡고 있는 핫도리(服部) 가문에 입적되어 형제의 누이동생과 결혼하게 된 인연을 소개한다. 내선 결혼을 다룬 이 당시의 소설들이 남녀 간의 운명적 사랑과 이를 방해하는 환경을 극복하거나 혹은 좌절하는 서사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소설은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애의 신의가 먼저 오고 그 후 혼인 당사자간의 의사 확인이라는 수순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또한 가문의 입적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없는 상태여서 ‘나의 동생이 되어 달라’는 형제의 인연맺기로 혼인이 성사된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는 이석훈에게 일본과 조선은 형과 아우로 비유되는, 철저히 남성 대 남성의 관계로 접근하는 태도에서 산출

34) 오카 마리의 리얼리즘의 욕망이란 개념을 본고에서는 서사의 욕망으로 바꾸어 차용·서술하였다. 오카 마리(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81면.

된 것이다. 일본/조선을 남성/여성의 젠더로 표상되는 제국/식민지의 체계를 거부하고, 그는 내선일체를 통해 일본/조선을 제국주의자의 욕망을 품은 남성 형님/남성 동생으로 상징화한다.

하얼빈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용식은 혼자 탄 일본군인과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고향이야기가 나오고 용식은 가고시마현이라고 이야기한다. 군인은 어쩐지 가고시마 말투가 있다고 느낀다. 군인이 내린 뒤 용식은 “형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계(鮮系)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아서(角が立つやうだし)……”라고 변명하듯 말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나에게 신경 쓸 것 없어. 당당한 일본인이니잖는가. 게다가 너는 본적이 가고시마니까, 진정한 큐슈인이다. 너하고 나는 사촌이니까 나도 준 가고시마 사람이니? 하하하”³⁵⁾라고 대답한다. 일본과 조선은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공적 세계의 형제가 되어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혼인을 통한 내선일체는 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 역시 기꺼이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선인이 화장실에 갔다온 사이에 만계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 것 때문에 차내가 시끄러워진다. 조선인을 겹겹이 에워싸고 청복 입은 만계의 사람들이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할 태세를 보이자 용식이 유창한 지나어로 그들을 꾸짖고 해결하는 장면은 만계사람들을 계몽이 필요한 혈연적 집단주의로 표상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 기차 안에 일본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2등 국민인 조선인이 불합리하게 당하는 위협을 용식은 일본인처럼 행세하여 싸움을 증재한다. 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용식은 그 조선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와 ‘나’와 일본어로 얘기한다. 즉 조선인과 조선어로 얘기하지 않고, 식민자가 부재할 때 식민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소설의 구도는 결국 내선일

35) 이석훈, 『血緣』, 『東洋之光』, 5권 7호, 1943. 8, 95면.

체로의 동화가 지배자가 되고 싶은 피식민자 상층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내선일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자신의 신념 역시 확고하다고 할 수 있는지 회의하는 조선인의 현실을 테마로 삼은 소설이 <旅おはり(여행의 끝)>이다. 주인공 철은 간도성 홍보위원회가 연 피로연 자리에 문학방면의 사람들이 참석해주기를 바랐으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자 실망한다. 심지어 같은 고향에 방송국일로 절친한 동료였던 전학주마저 사람을 보내도 오지 않은 것이다.

바쁘다면 전화라도 걸어 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철은 자기의 우정이 전학주에게 통하지 않는 쓸쓸함을 느꼈다. 동시에 자기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이 1, 2년 이래 조선 문단에 휩쓸린 국민문학운동의 선두에 선 철 자기의 문학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따돌림에까지 생각에 미치자 드디어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주의주장이 다르면 부자 사이도 서로 상극이 있는 것이다. 하물며 경성과 간도로 떨어져 있는 친구가 가령 서로 사고 등 사상이 대립하는 경우 이런 정도의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철은 자신에게 위로했지만 그럼에도 슬픈 것임에는 틀림없는 일이었다. (중략)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평상시 내지식 창씨명을 쓰고 앞장서서 일본주의를 휘두른다고 일반에게 보이는 철 자신이 열등감이 아니라 제일 쓸쓸한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³⁶⁾

이런 우울감과 고립감은 다음 날 저녁 자리의 언쟁으로 폭발한다. 이날 철은 내선일체를 표방하는 조선인을 “그 놈은 시국에 편승해서 기실 사리사욕에 급급한 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성(成)과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회합이 끝나고 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철은 소리를 놓여 울고 싶다는, 일종의 울분의 감정에 휩싸이면서도 “이상하게

36) 이석훈, 『旅おはり』, 『綠旗』, 13권 6호, 1943. 6. 92면.

도 성이 사랑스러워지고(いとほしくなり) 전보다 더욱 성에 대해 따뜻한 우정을 느끼”(93면)고 극렬하게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울분과 분노의 감정은 민족을 위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정한 뜻이 조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억울함에서 나온 것이고, 성 역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감정적 반응임을 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이 소설은 내선일체 사상을 선택했지만 심리적인 고립감이 대단했고 내선일체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내선일체 운동에서 부딪히는 동요와 반응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내선일체 운동의 성취 단계를 드러내겠다는 작가의 창작방법이 드러난다.

이석훈은 이러한 고립감과 불안에 대해 “실은 나 자신이 그러한 강연을 하고, 작품에 쓰고 한 것을 내심으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한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공중의 앞에서 성격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연설을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또한 언제가 지나 역연한 증거로 남는 문자로 엮어서 후세까지도 정치적으로 아첨하는 경박한 무리로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이 있었던 터”³⁷⁾였다고 고백적 수필에서 스스로 밝힌다. 내선일체로 스스로를 자기 훈육하는 과정은 자기 분열적인 신경증적인 긴장을 수반하는 억지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석훈은 그럴수록 더욱더 내선일체 동화를 향한 자기 훈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드디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역사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징병제 실시의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 나 자신이 말할 것과 행동에 거짓이 없었다는 자기만족과 감격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³⁸⁾였다. 그에 게 징병제 실시는 내선 양 민족을 단단하게 묶는 유대이며 연결고리이며,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조선인도 이제 완전히 일본국민이 되는 의미를 지닌다. “내선 양 민족이 이렇게 함께 애를 써서 큰 전쟁을 치르고

37) 이석훈, 『男の征く所』, 『綠旗』, 14권 9호, 1943. 9, 64면.

있는 것도 완전한 운명으로 2천5백만의 조선인이 지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형을 돕는데 한 뭇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날에 동생다운 면목을 세우겠는가?”(64면)라고 새로운 역사의 국면과 사명을 주창하며 징병에 응해 하늘과 바다, 군인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문인보국회의 간사장의 일을 방기한 채 돌연 이석훈은 1943년 8월 중순 무렵에 만주로 이주한다.³⁸⁾ 만주에서 보내온 수필 <滿洲物語>에 “만주건국은 인류의 대 낭만의 실험”³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주국은 일본의 두 배, 일억 내지 이억의 인구를 포용할 수 있고, 농업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공업자원으로 보아서도 일본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제2의 미대륙 발견’이고 “만주국은 20세기의 위대한 창조”(75면)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옛날 장춘의 20배, 동경의 70%에 해당하는 국도 신경의 건설을 예로 든다. 한편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백오십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와 절대불가분의 운명에 있는 만주에 대해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72면)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처럼 이석훈은 조선인 백오십만 명이 살고 있는 현실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만주를 피식민 차별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선일체 수용이 식민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처럼 만주 역시 조선인이 자기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헤게모니 공간이었던 것이다.

38) ‘만주예문연맹’이 대동야전 2주년을 맞아 ‘전국예문가회의’를 1943년 12월 4일과 5일에 개최했는데 주요한이 조선문인보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에 대한 보고에서 “조선문인보국회의 소설 회곡부 간사장인 마키 히로시 군이 때 마침 신경에 내입해 이번 회의에 함께 출석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으며, 앞으로 마키 히로시 군이 만주문에 가협회에 가입해 조선인 작가로서 크게 활약해 줄 수 있도록 아마도 위원장의 쾌락(快諾)을 받은 일도 하나의 수확이다.”라고 이석훈의 만주 근황에 관해 언급한다. 주요한, 『결전하 만주의 예문 태세』,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251면.

39) 이석훈, 『滿洲物語』, 『新時代』, 1944. 5, 75면.

IV. 내선일체의 환멸과 분열의 서사

오다카 아사오(尾高朝雄)에 따르면, 내선일체란 천황의 신민이 되는 것이고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마음에 귀의하여 사심 없이 봉대하는 자가 곧 신민이라 하였다. 즉, “일본 신민된 자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도 국체의 본의를 깊이 신체에 체득하는 한, 천황의 공민으로서 동일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일본의 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이라고 해도 아직 진실한 황국신민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심에 집착하여 공심을 잊어버린 자는 아직 천황의 공민이 될 자격이 없고 따라서 천황에 귀일하여 봉공하고 군신일체의 내실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라”⁴⁰⁾는 것이다. 끊임없이 연기되는 ‘귀일’의 목표는 소아인 나를 버리고 전체적 주체인 공의 세계로 이끄는 일종의 정신주의이다. 이렇듯 내선일체의 정치적 운동이 하나의 자기훈육이 되었을 때 육체, 쾌락, 생활은 억압된다. 이러한 자기훈육적인 정신주의는 현존의 생활세계를 비하하고, 이러한 생활세계에 집착하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석훈이 다른 문인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내선일체 운동의 진의가 곡해되어 오해받아 고독과 쓸쓸함을 느낀다고 당당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내선일체 운동의 현주소와 성취 정도를 사실대로 밝혀 운동의 좌표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립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정신주의의 순수성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숭고한 정신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이석훈에게 내선일체는 먼 미래의 ‘당위’였고 실천운동을 통해 민족의 지위를 격상할 수 있는 ‘운동’이었다. 당위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연기되는 목적론적 정신주의를 뚫고 생활과 육체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나는 네 명의 아들이 있지만 하나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40) 國民總力朝鮮聯盟防衛指導部 編, 『國體の本意と内鮮一體』, 1941, 59면.

다리에 힘이 빠져 못쓰고, 하나는 교통사고로 마차에 오른쪽 다리가 깔려 두 아이는 두뇌는 다른 사람과 같은 보통이지만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우울해지고 만다.”⁴¹⁾라는 수필 <男の征<所>에서의 언급처럼 이 생활과 육체의 목소리는 멀기만 한 당위의 내선일체 실천에 피로감과 괴리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운동과 실천을 통해 목적론적 당위에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피로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된다.

그 피로감을 재현한 것이 소설 <善靈>⁴²⁾이다. 이 소설은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하여 서울에서 사라지자 ‘국민운동의 전선에서 이탈했다’는 자신의 소문에 대한 해명서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국민운동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필된 것이지만, 서사의 층위는 내선일체 운동과정에서 느꼈던 환멸과 고민의 고백으로 혼란스럽게 조직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박태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선배 윤 선생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단체에 몸을 팔았던가?”(90면)라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서, “그 단체는 오늘이야 유리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 보라. 그런 단체 같은 것은 어디에 있었나 하는 정도로 몰락하고 말거야”(91면)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열흘도 못 되어 윤 선생이 “아, 박 군인가. 지금 일 어때. 그래 열심히 해라.”(92면)라고 자신의 말을 번복하자, 혼란스러워 한다. 한편 늑기 연맹의 ‘우두머리(大親分)’를 동경으로 보내는 환송회에서 “큰 단체 속에 굳건히 양다리로서 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동지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독하지 않을 텐데”(97면)라며 그들 사이에서도 이질감과 고독감을 느낀

41) 이석훈, 「男の征<所>」, 『綠旗』 14권 9호, 1943. 9, 64면.

42) 이석훈, 「善靈」, 『國民文學』, 1944. 5. 「선령」에 대한 분석은 이전의 논문(졸고,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3호, 2010. 6, 56-59면)을 참조했다.

다. 일본국가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의 장을 ‘오야붕’이라고 폄하하여 부르는 것은 그 단체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고 그 단체에 거리감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 혼란과 이질감 등으로 “그는 집에 돌아가자 무거운 피로감을 느꼈다. 잡자리에 누워 오랫동안 전전반측하면서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가면 나는 파멸이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몹시 고민”(97면)한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단련해야 한다는 사명감’, 즉 자기훈육의 의지로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신사참배는 일본인 되기의 흉내내기이자 동일화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신사참배에서 일본인 실업가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피식민자의 운명을 일순간 자각한다. 신사참배에 늦은 박은 행렬의 뒤쪽에서 배례를 올렸다. 마지막 배례가 끝나자 키가 높은 선두로부터 이열종대로 물러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선두 쪽으로 뛰어갔다. 박은 키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보통 맨 앞에 서는 습관이 몸에 밴 것도 있고 뒷부분에는 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앞의 <血緣>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석훈에게 일본과 조선은 형과 아우로 비유되고 그의 내선일체는 제국주의자의 욕망을 품은 남성적 세계인데, 여성(비록 일본 여성이지만)과 함께 가리는 요구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인 것이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나카무라라는 평의원 중의 중로(中老)가 대갈일성, ‘늦었던 사람이 선두에 서는 게 아냐!’라고 그렇게 박을 꾸짖었다. (중략) 아주 조그마한 일로(벌써 참배는 끝났을 때인데) 부인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창피를 주는 나카무라의 행동 방식은 박은 아무래도 악의가 들어 있는 모욕 이외로 해석할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주는 모욕인가? 이것이 규율이라는 것인가. 이것이 규율이라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는 요컨대 하찮은 일이었다. 이제 그 순간에 박의 태도는 결정 난 것이다. (이런 밑구멍이 비좁은 늪은이가 간부랍시고 판을 치는 단체 따위는 빨리 나가버리자...) 라고 생각했다. (98면)

‘특별한 규율’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부여 되고 그 권력이 위계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민 주체에 의해 자신이 훈육 대상으로 대상화되어 버리는 소외감과 강제를 느낀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소속한 녹기연맹이 내선일체를 주장하지만 그 내부의 ‘당파주의’ 즉 내선일체가 아닌 내선 차별이 있음을 깨닫는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모방은 자아(ego)의 제한성을 집요하게 부정하는 것이며, 동일시는 갈등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⁴³⁾ 주인공은 단체의 참여와 신사참배 등을 통해 식민자를 모방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행위를 통해 식민자와 유사성(resemblance)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행위는 식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식민자에게는 위협(menace)이 된다. 식민자에게 차이와 부인의 대상인 피식민자가 동일의 존재로 식민자의 지위를 넘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배타적 과정과 타자화 과정뿐만 아니라 타자성에 반응하는 공포도 있다. 지배 담론은 양가성의 흔적이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불안한 권위를 내포한다. 식민주의적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담론은 타자를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담론은 타자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자와의 충분한 동일성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선일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는” 모방의 지점이면서 다른 한편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비동시적이며 비대칭적 관계 속에 있는 균열과 어긋남이 노출되는 혼성성의 지점이다.

박태민이 많은 지탄과 오해를 무릅쓰고 파멸할 것 같은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식민자를 모방하고 식민자와 동일시하려고 해도, 식민지는 피식민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생산한 차이의 이화(異化)로 인해 균열이 생긴 셈이다.

43) Bhabha, Homi(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272면.

예컨대 문학상에서도 박과 심은 꽤 생각이 달랐다. 가령 국민문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박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심은 결코 희망을 안고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각각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언급하게 되자 박 자신도 완전히 심과 똑같은 말을 누설할 때가 있었던 것이다. 심과 헤어져 혼자가 되면 자신이 왜 자신의 입장, 자신의 사고를 명백히 털어놓지 않고 비굴해지는지, 그 수상한, 심리의 변하는 모양을 단순히 기력이 없다거나 성격이 약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박 자신에게도 분명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다.(100면)

박태민은 문학 사상이 대립되는 즉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국민문학에 반대하는 ‘심’에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심’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자기분열을 경험한다.⁴⁴⁾ 이 분열은 지적 불확실성과 자기 환멸(self-disillusion)의 결과이다. 황국신민으로 일체화하려는 자기훈육 과정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두 아이의 병과 곤핍한 생활 탓도 있지만, 조선인이 황민신민으로 동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로감의 누적에서 온 것이다. 즉 자기훈육의 과정에서 내선일체로 매끈하게 수렴되지 않는 다른 사건과

44) 자기 환멸의 과정에서 이석훈이 에세んに 주목하는 지점은 여러 가지로 흥미할 가치가 있다. 『선령』에서도 에세닌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생파적인 시의 울림에 공감해서 인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반자 작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참여하였다가 현실사회주의에 환멸을 느껴 자살한 에세닌과 내선일체 운동에 참여하고 회의를 느끼는 자기를 등치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에세닌에 대한 언급은 『金鍾漢の人及作品』, 『國民文學』, 1944. 11. 에도 나온다. 이석훈은 김종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면서 일본어로 시를 써온 김종환의 시도와 노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석훈은 “나는 그의 국어 작품보다는 조선어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이다.”(66면)라고 선언한다.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의 생명력을 파악해야 하고 그렇기에 일본어로 작품을 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벗어난 것이다. 에세닌이 농촌적이고 풍토적인 대지와 이에 기반한 언어에 근간에 두고 작품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김종환의 시골풍의 국어시보다는 여기에 예를 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조선어시 쪽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기억한다.”(66면)는 이석훈의 주장에서 언어의 동일화를 통해 내선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자기의 입장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소리를 서사화 한 것이 <善靈>이다. 이 사건과 목소리는 내선일체의 완결된 서사로 과거 속에 매장되어 흔적 없이 봉인되고, 표백된 기억과 순치된 언어로 갇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는 기억과 사건의 분유(分有)를 요구하고 있다. 내선일체로 봉인되지 않는 다양한 흔적과 사건을 나누어 갖기를 요구하고, 그 흔적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건의 기억을 불러내고 있다. 내선일체의 서사는 동화와는 다른 사건과 목소리로 찢겨지는 것이다. 비록 이석훈이 내선일체의 성취단계를 드러내기 위해 이 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재현하겠다는 창작방법을 취하고 소설을 써왔지만 이 소설은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기억과 서사로 통합되는 힘을 피열시켜 버린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善靈>은 조선인이 황민신민으로 동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긋남과 내선일체의 감각으로 동화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자기 환멸과 ‘자기기만’의 균열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선한 영혼이란 의미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조선인의 차별로부터의 탈주로서 내선일체를 선택했다는 ‘목적의 순수성’을 암시한다. 이 소설에서 내선일체와 동화되지 않는 분열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역시 그것이 동화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방 후 쓴 한국어 수필 <고백>에서 명증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수필에서 이석훈은 자신을 ‘정신적 범죄자’로 자처하고 “만주에서 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정체를 보다 더 명료하게 파악했고 일본의 기만정책을 더욱 뼈저리게 인식했다”⁴⁵⁾고 쓰고 있다. 기만정책을 인식했다는 서술은 이석훈이 동아협동체를 건설한다는 구상에 참여하여 탈식민의 욕망을 꿈꾸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확전으로 다수의 고통과 희생이 잇따르고 내선일체 이데올로기가 전쟁 동원의 구실밖에 기능하지 못함을

45) 이석훈, 『고백』, 『백민』, 1947. 5. 45면.

목도한 연후에야, 자신의 꿈이 결국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셈이다.

V. 맺는 말

내선일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총동원체제로 조선을 끌어들이고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는 논리상으로는 식민자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차별이 사라진 동일함을 목표로 할 때 더 이상 식민-피식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가시적이며 계몽적이었던 가치조차 식민 공간 속으로 옮겨오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며 양가적인 가치로 탈구되고 전치되고 이접되어, 식민 모국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고 식민 지배를 공격하기 위한 비판적 화살로 되돌아온다.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는 식민 공간에서 식민권력의 지배는 항상 주장되지만 그 주장은 계속 미끄러지고, 끊임없이 전치되며,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대주체를 요구하면서 교육을 통해 그것을 확산시키려 한다. 그러나 내선일체, 즉 조선과 일본의 동화가 끊임없이 연기된다. 다만 지배-피지배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민족을 부정하고 지배자의 ‘얼굴’로 스스로를 재탄생시키고 개종(改種)하고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로 자기를 훈육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본원적인 폭력에 해당된다. 이석훈 역시 내선일체를 자기 훈육의 신념으로 삼아 탈식민을 추구하지만 동화는 끊임없이 차이를 생산하고 연기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선일체에 대해 환멸하고 스스로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일제 말기 이석훈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와 만주 지역은 식민자 일본인, 피식민자 조선인이라는 지배관계를 바꾸고 차별

로부터 벗어나거나 좁히고, 자기가 식민자가 될 수 있다고 꿈꾸게 하는 공간이었다. 조선인은 만주에서 식민자를 모방하며 제한된 헤게모니를 확장시키려 노력했지만, 식민자가 될 수 없는 철저한 분할 지배 대상자의 한 축이었을 뿐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석훈, 『北の旅』, 『血緣』, 『男の征く所』, 『旅おはり』, 『善靈』 등.
『삼천리』, 『만선일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등.

2. 단행본

노기식·한석정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김기훈 외,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2009.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김호웅,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문학 연구』, 새문사, 1991.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아세아문화사, 1999.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조성일, 권철, 『중국조선족 문학통사』, 이회, 1997.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출판부, 1999.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푸른역사, 2009.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5.
미야다 세쓰코(宮田節子)(이형낭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다카시 후지타니,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
滿洲國史編纂委員會, 『滿洲國史』, 동경, 1970.
Foucault. Michel(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7.
布袋敏博, 『일제말기 일본어소설연구』, 서울대학원 석사, 1996
芹川哲世, 『李箕永의長篇<處女地>論』, 『朝鮮文學論叢』, 東京, 白帝社, 2002.
川村 溱, 『異郷の昭和文學』-滿洲と近代文學-, 岩波書店, 1998.
香川幹一, 『滿洲國』, 東京古今書院, 昭和15, 1940.

3. 논문

고부웅, 『에드워드 사이드 일주기에 즈음하여』 에드워드 사이드와 탈식민주의 이론, 『역사비평』 68호, 역사비평사, 2004. 8, pp.360-375.
임성모, 『만주국협화회의 총력전체제 구상연구: ‘국민운동’ 노선의 모색과 그 성격』,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0.

-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현대소설연구』 17집, 2000. 2, pp.207-227.
- 조진기, 『만주 개척민소설 연구』, 『우리말글』 26권, 우리말글학회, 2002, pp.387-422.
-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86호, 2004. 12, pp.341-360.
- 조관자, 『중일전쟁기의 조선학과 고전부흥』, 『사상』, 2003. 3, pp.58-81.
- 한석정, 『만주국과 조선과의 관계』, 『아시아문화』 제19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8, pp.131-159.
- 한석정, 『만주국의 민족형성과 외래 거류민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97. 12, pp.845-871.
- 한석정·임성모,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 만주국관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회학』 35집 3호, 한국사회학회, 2001. 6, pp.169-195.
- 사카이 나오키, 『서구의 탈구와 인문과학의 지위』, 『흔적』 1호, 문화과학사, 2001, pp.133-161.

Abstract

A Study on Imperialistic desire and colonial subject in Manchuria
- Centering on Lee, Seok-Hoon's novels in Japanese

Chin, Young-Bok

For Korean, Manchuria had been changed from the area where they are wandering and make the nationalist movement to the area where they are pioneering and can move to, while Japan's control was extended since Manchukuo was established.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presented by Minami governor has a double meaning in which one is a desire that tries to get out of colonizee and the other is a desire of colonizers. Therefore, according to this dual desire structure of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this article focused on Lee seok hoon who moved to Manchuria and wrote a Japanese Novel related with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In the <Travel North> written by Seok-Hoon, Lee, Manchuria was presented as the ethical area of turning over a new leaf where one can dream rebirth. This novel was presented that the conviction of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the subject was composed of colonizers through identification with Japan accordingly, and recognized Manchu as a new colony. <Consanguinity> is that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was embodied by a marriage, everyday life. Even if it had talked about a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it showed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rejects the imperial/colonial system in which Japan/Korea was represented by gendering of male/female. It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is structured by masculine boss/masculine brother who cherishes the desires of the imperialist.

In <The End of a Travel> published after, it was expressed by shaky his conviction while he found cold response from Korean in Gando. His work,

<Sunyoung> was reproduced by a sense of fatigue due to this, and it contained self-division figure of colonizee who tried to imitate colonizers. This division comes from the understanding that can't be identical with colonizers, also that colonizers do not allow to be identical with them to colonizee.

In the late colonial period, Manchuria was the space where Koreans as well as Lee, Seok-Hoon could have a desire to be colonizer due to form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a Japanese as colonizer and Korean as colonizee by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n. However, Korean had position where can't be colonizers in Manchukuo.

Key-words : Manchuria,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colonizer, colonizee, desire, Identification, division, Lee, Seok-Hoon.

진영복

소속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주소 : (120-845)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186-1 미성아파트 1동 407호

전화번호 : (연구실) 02-2123-6039 (휴대전화) 010-8012-6314

전자우편 : sunjyb@yonsei.ac.kr

<p>이 논문은 2011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p>
